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07 5
2011. May

해운대해수욕장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여행사 보증을 여행공제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업자, 선박 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현대드림투어, 세종투어몰여행, 롯데관광개발, 오케이투어서비스(주)투어버스, 레드캡투어, 맥여행사, 자유투어, 노랑풍선, 한진관광,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칼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여행사닷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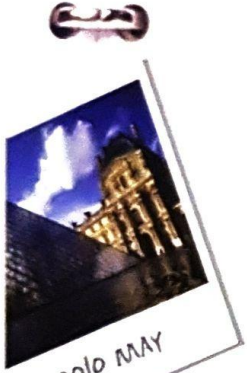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큐슈여객철도, 대이여행사, 한일고속, 대이고속해운, 씨월드고속해미리,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KATA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경제위
서울 중구 대동 19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 팩스 02-757-7490

KATA 02-752-8692	서울 02-757-7482	강원 033-242-0089	부산 051-463-3111	충북 043-231-5563
대구 053-746-6407	충남 042-254-5465	인천 032-432-4590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3
광주 062-724-4486	전북 061-285-0833	대전 042-226-8413	경북 054-745-0750	경남 052-275-2412
울산 052-275-2412	경남 055-212-1345-6	경기 031-255-8424	제주 064-742-8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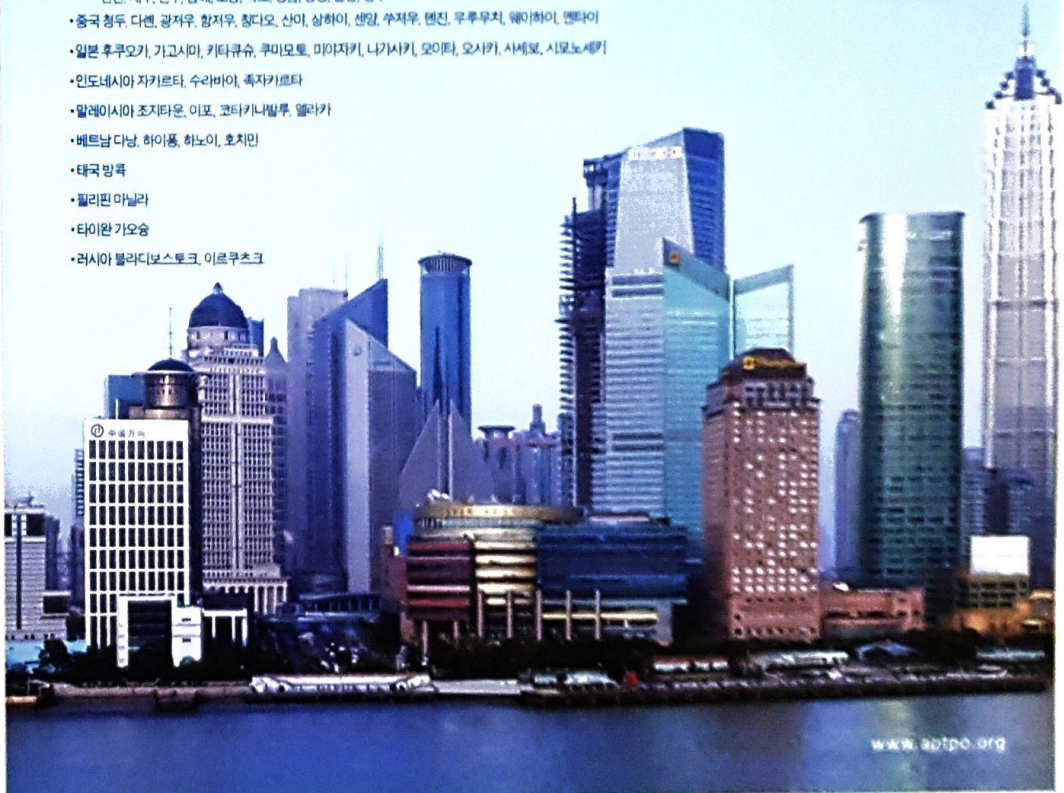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김포, 기계, 김해, 광주, 광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이, 상하이, 선양, 우저우, 뎬타이, 웨이하이, 뎬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기타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발행 · 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혜식 이명규 김동규 이혜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재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1년 5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시하구 하당동 870-85 나산리초 202
 TEL. (051)206-7500 FAX. (051)206-7767
 E-mail. bilibusan@hanmail.net
 편집 · 디자인 보문디자인 (051)469-3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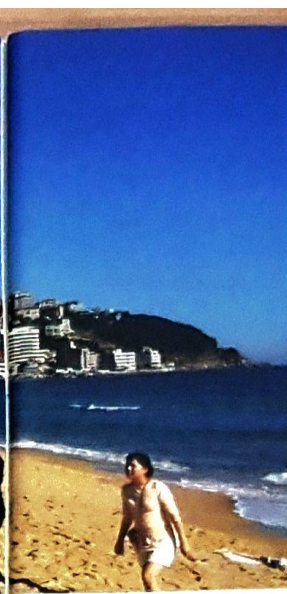


표지_해운대해수욕장

- 06 해운대해수욕장 등 5개 해수욕장 내달 1일 개장
- 09 부산시,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투어버디 캠페인
- 11 부산 벡스코, 국제회의도시로 우뚝서다
- 12 메세나 활성화 '신바람 났다'
- 13 용두산공원서 전통혼례식 올린다
- 14 '부산문화관광도우미' 매력적인 부산 구석구석 관광안내
- 16 광안대교, 최첨단 LED로 교체
- 18 부산 갈맷길, 관광자원화 하자
- 21 수요일엔 40계단테마거리서 추억 즐겨요
- 22 길_해운대달맞이길에서 청사포길을 걷다
- 25 부산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나선다
- 27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
- 28 에어부산, 부산~나리타 내달 23일 신규취항
- 31 등대와 함께하는 부산항축제
- 32 문화산책 · '문화'는 삶의 필수품이다 / 편집위원 김봉오
- 34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 36 호텔가소식
- 40 CEO칼럼 · 최초는 'No'였다 / 노보텔엠베서더부산 회장 강 옹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지역 해수욕장 6월 1일 개장

해운대·광안리·송도해수욕장 6월 1일 개장 송정 등 4개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부산시가 부산지역 3개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2개월 늘려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공식 개장한다. 따라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예년의 7, 8월 두 달에서 올해 처음으로 넉 달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민과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더 오래 찾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해수욕장이 있는 일선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해수욕장 운영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광안리·송도 3개 해수욕장은 6~9월 넉달간 임해행정봉사실을 운영한다. 나머지 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해수욕장은 7, 8월 두 달간 공식 개장한다.

사계절 보고 즐기는 해수욕장

해수욕장별 특화 방향은 ▷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오지 관광객 ▷광안리 젊은 층 ▷송정 해양레저거점 ▷송도 가족 위주 ▷다대포 지역주민 위주 ▷일광·임랑 조용하고 아늑한 휴양지로 해운대해수욕장은 야간 거리공연(5-10월), 해변 살사댄스페스티벌(6-10월), 세계 개국제(World Dg Festival, 10월), 워터스크린쇼를 신상하고 해변스포츠존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7, 8월 또·일요일마다 밤 10시~새벽 2시 차 없는 거리에 소규모 공연장(개소를 운영하며 연극·무기타 등을 공연할 계획이다. 또 호메로스호텔 앞 백사장에 바다도서관을 운영하고 이국적인 야자수 원두커피 판매점을 시범 설치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했다.

송정해수욕장은 선댄스, 썬킴, 스포츠존, 전통민속놀이체험장 같은 특화수를 운영한다. 또 바람개비축제(12-2월)를 신상하고

캠핑족을 위한 사계절 야영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도해수욕장은 4-10월 윈드서핑과 딩기요트를 배울 수 있는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매달 송도해안볼레볼 달빛 걷기 이벤트를 연다. 다대포해수욕장은 5-9월 토요일마다 낙조분수, '워터락' 콘서트를 열고, 9-11월 가족 위주의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전한 해수욕장 과제

부산시 소방본부, 남해해양경찰청, 부산해경은 물놀이 안전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 수영자와 안전통제 불응자에 대한 입욕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역발상으로 이용해 워터파크처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객에게 구명자켓(16개)을 무상 대여하기로 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해운대 담배꽂초 버리면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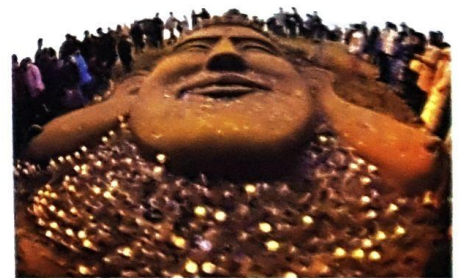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구 길거리에 담배꽂초를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인 구남로, 신세계센텀시티 앞, 장산역 등의 3곳

을 담배꽂초 무단투기 단속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달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6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6월 3~6일 까지 해운대 모래축제 열린다

부산 해운대구는 "2011 해운대모래축제"가 오는 6월 3~6일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2011년 유망축제로 지정된 올해 모래축제의 테마는 '판타스틱 샌드월드'. 축제는 세계모래조각전, 10m 모래언덕에서 보드를 타며 스피드를 즐기는 샌드보드(모래썰매) 페스티벌, 모래야 놀자 '모래탐험관', 축제퍼레이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샌드그래피티아트 페스티벌, 모래마켓, 해양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이뤄진다.

세계모래조각전은 '모래성으로 떠나는 동화여행'이 테마. 모래 예술가들이 중세 유럽의 성, 책과 풍나루, 인어공주, 걸리버여행기 등을 해운대 백사장에다 풀어놓는 '모래미술'을 펼친다. 이 모래성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작이 아니다. 중세 유럽의 수문장이 성문을 지키고 있고 모래성 안에서 중세 유럽인들이 관광객을 맞는다. 일종의 '모래세계 테마파크'다.



오리발 걷기 등으로 이뤄진 '모래샌드월드'를 비롯해 ▷모래그림그리기·모래 속 모래찾기 등 '모래야 놀자' ▷공빛으로 수놓은 샌드보드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씨가닥 타기 파도타기 등을 즐길 수 있는 편지가 부른다' 등 참여·체험할 수도 다양한데 관심이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부산관광 끝!

길안내 없이 가고싶은 곳, 맛집은 내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뉴스·관광·교통·민원정보 실시간 서비스

부산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이제 목격지까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지, 길어가면 어느 길이 빠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스마트폰 하나로 바로 알 수 있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유해업소나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전통학로' 검색이 가능하고, 관광객은 여행하고 싶은 곳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부산시는 스마트폰 가입자 1천만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펼친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알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부산시 모바일 홈페이지(m.busan.go.kr)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뉴스·관광·교통·민원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얻을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 16가지를 개발, 지난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에 나서 최근 보원과 시범운영을 마친 상태다. 부산시 모바일 홈페이지는 취업정보, 복지정보, 예산상비신고, 불친절공무원 신고, 어린이발급 안내, 직원 전화번호, 부산시에 바란다, 고시·공고 등 모두 13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미디어센터, '알고싶다. 부산', 관광투어, 인·허가 가능성 진단, 뚜벅이 안전길 안내, 시티투어버스, 어디서나 불편신고, 주민안전도우미, 교통정보서비스 등 16가지다. 부산시 모바일 홈페이지나 통신사별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일부는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시작, 이미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부산 모바일 앱 개발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33명의 앱 개발자들이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다. 온라인상에도 앱개발센터(www.fmac.kr)를 구축, 부산지역 대학생·청년 등에게 앱 개발환경을 무료로 제공, 1인 강습을 돕고 있다. 또 부산시 모바일 홈페이지(m.busan

go.kr)에서 '알고싶다. 부산'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으면 부산시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최신 기사가 쏟아진다. 시정·경제·문화·생활기사에서부터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가득한 블로그, 영상미가 돋보이는 바다TV의 살아있는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트위터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다. 뉴스를 보다가 관심있는 기사는 따로 북마크 해두면, 언제라도 저장된 기사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모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바다TV에 들어가면 최신 시정뉴스, 시민호응이 큰 '베튜의 부산보기', '포커스부산' 바다TV 우체통' 같은 자체 제작 동영상과 아름다운 사진 언들도 두루 공개하고 즐길 수 있다.

※문의 : 유시티정보담당관실 (T.888-2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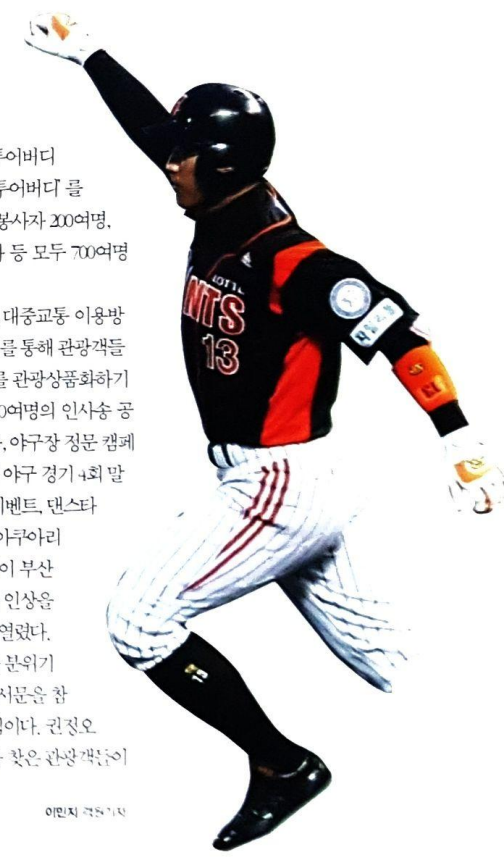
부산시, 롯데디자인즈와 함께 투어버디(Tour-Buddy, 관광친구) 캠페인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컨벤션뷰로가 지난 13일 사직야구장에서 투어버디(Tour-Buddy, 관광친구) 캠페인을 펼쳤다. '롯데디자인즈와 함께한 투어버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등대콜 소속 탁사운전기사 300여명, 자원봉사자 200여명, 관광안내단 100여명, 관광진공 학생 100여명, 관광컨벤션업계 종사자 등 모두 700여명 참가했다.

'투어버디'란 국내의 관광객에게 먼저 다가가 길을 가르쳐주거나,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친구처럼 친근한 시민을 말한다. 부산시는 투어버디를 통해 관광객들에 대한 부산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이와 함께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즈 30여명의 인사송 공연, 호텔 종사자 등 각계 실무자 투어버디 위촉, 등대콜 기사 친절 운동, 야구장 정문 캠페인과 응원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오후 6시부터 야구 경기 4회말까지 야구를 보러온 관객을 대상으로 잔광관 문자퀴즈, 스크린 영상이벤트, 맨스타 임 등 식전 행사를 펼쳤다.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에게는 호텔 숙박권, 이쿠아리움 무료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시민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친구가 되어 환영하고 다시금 부산을 찾도록 좋은 인상을 남김과 동시에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시는 투어버디 캠페인을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어버디를 나타내는 배지와 선식문을 참가단체와 등대콜택시에 비치해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철오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부산시민 모두가 투어버디가 된다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부산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사진



2013년 부울경 방문해 지정 협의체 구성 3개 시·도지사 부산 회동, 동남권 상징 관광브랜드 슬로건 채택 광역 관광명소·여행정보 앱 개발

부산 울산 경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 지정에 맞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관광명소와 여행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남권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앱에는 광역형 관광코스, 위치정보, 지역역사, 특산물 소개 등을 담는다. 동남권을 상징하는 관광브랜드와 슬로건도 만든다.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등 동남권 3개 시·도 지사는 최근 부산에서 만나 신공항 문제로 빚은 갈등을 뒤끝 없이 씻고 동남권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손을 잡았다. 이날 오전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다.

3개 시·도는 부울경 방문의 해에 대비한 공동 실무추진단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부울경 방문의 해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비 60억원을 지원받는다.

부울경은 또 동남권과 일본 규슈권 간 기업교류와 시장확대를 위해 11월 자동차, 환경 및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대표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 과제를 정한 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론형성을 위해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각 분야를 포함하는 주제별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가운데), 박맹우 울산시장(왼쪽), 김두관 경남지사가 지난 16일 롯데호텔부산에서 만나 부·울·경의 상생과 발전을 다짐하며 다시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 교통정보 IPTV로 도로상황 실시간 안내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일부터 IPTV를 통해서 시내 교통정보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들이 교통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IPTV3사 중 우선 KT-olleh TV(가입자 약 16만세대)를 통해 실시간 시내교통상황을 전해준다. 안방에서 간단한 리모콘 조작으로 교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IPTV로 제공하는 주요 교통정보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주요시내도로의 구간별 소통상황, CCTV영상정보, 사고 등 돌발상황 정보, 도로공사 정보, 버스도착 정보, 노선 경로검색 빠른 길 찾기, 기상정보 등이다.

부산시민들은 안방의 IPTV에서 언제든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 출발 전 TV를 통해 목적지까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막히지 않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부산벡스코, 국제회의 도시로 우뚝서다! 지난해 223건, 역대최다, 경제파급효과 4천900억원

컨벤션도시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 우뚝 섰다. 아시아의 영화, 영상도시, 동북아 물류허브, 한국 최고 해양도시에서 벡스코로 대표되는 뛰어난 전시·회의 인프라와 전례 없는 해양전경, 호텔 등 갖춰진 숙박시설이 국제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몫을 했다.

지난해 부산이 개최한 국제회의는 223건, 2009년 199건에 비해 24건이나 늘어나 500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국제회의 참가자수도 2009년 6만1천여명에 비해 2배 늘어난 15만8천여명(외국인 4만 3천 여명 포함)으로 집계 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전시회와 국제회의가 이어지면서 벡스코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벡스코는 이달부터 굵직한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밝혔다. ▷6월 2011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8월 2011 국제 환경·에너지산업전 ▷9월 2011 IT엑스포 ▷10월 2011 부산국제조선해양제철전(마린위크) ▷11월 지스타 등이 펼쳐진다.

11월에는 세계한상대회와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도 열린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40개국 한상 4000명이 몰리는 대형 행사이다.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에는 선진국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다. 또 게임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사이버게임즈 2011 그랜드파이널(12월)'이 가세해 비수기까지 행사가 쉼 없이 열린다. 월드사이버게임즈 참가 인원은 1000여명 수준이지만 세계 유명 프로그래머가 총출동하기 때문에 국내외 게임 마니아 수천 명이 몰

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린위크는 세계 유명 조선·조선기자클럽 참가 총출동하는 데다 최근 조선업 상황이 살아나면서 참가 규모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벡스코 전시장 1·2·3홀(전면 410m) 외에 야외부스까지 설치하기로 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추가 면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스타 역시 올해 관람객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전시공간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국제기계대전 역시 2009년보다 전시공간이 400m나 늘어 행사장 확보에 애를 먹었다.

벡스코 정중훈 홍보팀장은 "최근 계획 관련 대형 행사를 잇따라 유치했다. 내년 6월 벡스코 시설 확충 공사가 완료되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벡스코 하반기 주요행사〉

행사명	일정	참가인원
2011부산국제기계대전	5월 23~25일	10만명(예정)
2011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6월 23~25일	2만명(예정)
2011부산국제조선해양제철전(마린위크)	10월 23~25일	6만5천명(예정)
세계한상대회	11월 2~4일	4천명
지스타	11월 9~12일(예정)	30만명(3000명)
2011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11월 29~12월 1일	2천명
월드사이버게임즈 2011 그랜드파이널	12월 8~11일	950명

메세나 활성화 '신바람 났다'



동래학춤

부산문화재단, 기업과 예술의 만남 다리역할 톡톡 후원금액 전년대비 22%증가, 심의 거쳐 총 8억2천여만원 예술단체에 지원 예정



2011 메세나 참여 기업체 모집 결과 모두 29개 업체가 지역 예술 문화단체 후원 의사를 밝혔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27일까지 메세나 참여 기업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29개 기업체가 결연을 희망했으며 후원 금액은 모두 4억7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의 3억8천800만원에 비해 22% 증가한 규모다. 심의를 통해 후원이 결정되면 부산문화재단이 3억5천만원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두 8억2천300만원의 메세나 기금이 지역의 예술 문화단체에게 지원된다. 메세나(Mecena) 활동이란 기업이 이윤의 사회 환원과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예술 문화단체를 지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기업들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이 결연에 나섰다. 앞서 재단은 지역 단체들의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시각, 문화 등 6개 분야에 모두 46개의 부산지역 예술 문화단체가 신청을 했다. 참여희망 기업들은 재단 홈페이지(www.bxc.or.kr)와 홍보자료 등을 통해 예술단체들을 확인 후 후원하고자 하는 곳을 지정해 신청서를 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현금지원 뿐 아니라 현물이거나 시설 공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청목

은 '허경미무용단 Red Step'에 2천500만원을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고 금액의 지원을 약속했다. (주)삼호로지스, 유한미네라솔트(주), 조광요턴, (주)진성디이, (주)누멘로지스티 등 17개 업체는 각 2천만원씩의 후원을 희망했다. (주)커피 토마토는 커피제조기, 윈드 등 2천만원이치의 현물 지원을 신청했다. 문화재단측은 서류심사, 인터뷰 심의 등 심의과정을 거쳐 예술단체와 기업의 결연을 확정하고 매칭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후원 매칭을 받지 못한 17개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안중기업체의 후원을 모집해 결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 방침이다. 한편 예술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후원을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문화재단이 특별 제작한 메세나 인증 로고 및 인증패, 인증서 등이 제공된다.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 기업체는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효과를 볼 수 있고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서 "부산문화재단이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취재기자

용두산 공원서 · 전통혼례식 올린터

부산문화재단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준비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용두산공원을 소개한다. 부산문화재단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용두산공원을 소개한다.

부산문화재단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용두산공원을 소개한다. 부산문화재단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용두산공원을 소개한다.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용두산공원을 소개한다. 부산문화재단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용두산공원을 소개한다.

이민지 취재기자



'부산문화관광도우미' 매력적인 부산 구석구석 관광안내 7월중 특강 워크숍 통해 전문성 높일 계획

부산시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tour.busan.go.kr)를 통해 부산의 문화관광을 구석구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부산문화관광도우미는 올해 외국인 9명 등 리포터 44명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부산관광협회 소속 관광안내원인 모니터요원 36명 등 총 80명이 관광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체험기사 취재를 비롯, 올부터 홈페이지 문화관광가이드 질의사항 응답, 홈페이지 오류 자료 등을 바로 잡는다. 또 올부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링크돼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한 정보교류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도우미 공모에는 총 86명이 몰려 부산에 살고있는 시민 35명과 중국·미국·일본·인도네시아 유학생 9명 등 모두 44명을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자 15명, 여자 29명이며, 나이는 20대 23명, 30대 9명, 40-60대가 12명이다. 직업별로 대학생 17명, 회사원 20명, 주부 등 7명이며 웹디자인·관광분야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부산시는 문화관광도우미 8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교육을 하고 7월 중특강 등 워크숍을 열고 도우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들 문화관광도우미들의 활동실적은 지난달 구축한 '온라인 부산 문화관광 마이리시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리해,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부산 문화관광도우미의 운영으로 지역 문화관광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살아있는 여행 체험담을 더욱 빠르고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문화관광홈페이지가 부산 구석구석의 매력적인 모습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자료 업그레이드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객원기자



중국인 한국관광 목적은 쇼핑 中 해외여행 쇼핑비 비중 韓日의 2배

중국인의 해외여행쇼핑 소비규모가 전년 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코트라 상하이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에서 쇼핑비용이 차지한 비중은 여행지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평균 40%에 달해 일본 22%, 한국 19%의 2배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들의 지역별 쇼핑 비중은 홍콩이 76%로 가장 높고 마카오는 63.1%, 대만은 5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여행에서 엔터테인먼트 소비 비중도 19%로 일본 17%, 한국 8% 등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해외여행에서 숙박과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와 19%에 그쳐 한국의 숙박비중 35%와 음식비중 37%보다 크게 낮았으며 일본의 숙박(25%), 음식(25%) 비중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 중국의 작년 해외여행객은 5천739만명으로 전년보다 20.4% 급증했으며 해외여행소비금액은 480억달러로 14%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의 작년 해외여행 소비금액은 세계 4위 규모이며 중국의 올해 해외여행객은 6천

500만명으로 작년보다 16% 증가하고 소비액은 5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외여행객은 2015년 8천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위안화 절상과 부자들의 증가로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 중국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해외에 비해 크게 비싼 정도 해외쇼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호텔,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

부산지역 호텔들은 고객들이 호텔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호텔 홈페이지 리뉴얼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디스호텔 부산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 호텔 주변 걷기 좋은 코스인 달맞이개개·문탠로드 등과 함께 국밥집, 밀면집, 정식집 등 다양한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다. 호텔측은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고객에 한해 일부 객실의 패키지 요금을 10% 할인하는 한편, 추첨을 통해 세부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 등 경품도 제공한다.

부산롯데호텔은 구글맵과 연동해 부산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오는 7월 개통할 예정인 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소셜 커머스를 탑재해 어떤 인터넷사이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호텔의 멤버십 소식을 통해 부

산의 관광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도 소셜 커머스(온라인 특화된)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호텔실의 뷰, 객실, 수영장, 골프코스, 객실 예약 방법 등의 다양한 여행정보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타라호텔은 소그룹(Accorhotels.com)을 통해 다양한 특이한 객실을 소개해 젊은, 가족 및 예약이 가능한 호텔 객실을 소개해 고객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현 객원기자





광안대교 최첨단 LED로 교체 다양한 글자·영상 연출로 경관조명의 차원 달라질 것

부산시는 총사업비 66억원을 들여 광안대교경관조명을 일반조명에서 LED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을 이달 말에 착수한다. LED경관조명 1만 1천 600세트와 LED가도등 1천개를 설치해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최첨단 디지털 조명을 연출할 계획이다.

현수교를 활용한 조광이 대항스카이라인만이 다양한 글자와 영상까지 연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기예외의 영상정보도 제공된다.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로 다른 조명이 연출되며, 각종 축제와 이벤트, 시민참여 조형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해변의 영상 시설도 추가해 대안이 있는 스카이라인도 가능해진다.

광안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전 세계 조명업체가 주목하고 있다. 초대형 구조물에 장미 LED를 시공하는 것은 세계 최고인데다 적용되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 6억원의 투자비도 6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내년 9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2년 광안리 세계꽃축제때는 달라진 광안대교 야간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연말까지 685m 온천천~수영강 산책길 잇는다

부산시민이 즐기려는 온천천과 수영강 산책·자전거 길이 하나로 이어진다.

부산시는 온천천 하류 안락교 부근에서 수영강 합류지점까지 685m 구간에 총 20억원을 들여 산책길과 자전거 길을 연결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 오는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두 곳의 산책·자전거 길이 연결되면 온천천 12.9km, 수영강 14.6km 등 총 27.5km 길이의 산책·자전거 길이 완성되는 것이다.

수영강과 온천천이 생애하천으로 밀바꿈하고, 산책길과 자전거 길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민이 크게 늘었지만 두 곳이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따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그동안 두 곳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두 곳의 합류지점인 범영로 아래쪽 보행공간이 비가 올 경우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큰 비가 있을 때에도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연결로 공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른바 부산시 하천관리담당관은 "2009년 여름 큰 비가 왔을 당시 온천천 중류 쪽 보행로에는 침수가 발생했지만 하류

쪽에는 1m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 산책로를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영강과 온천천의 산책길이 연결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산책길을 부산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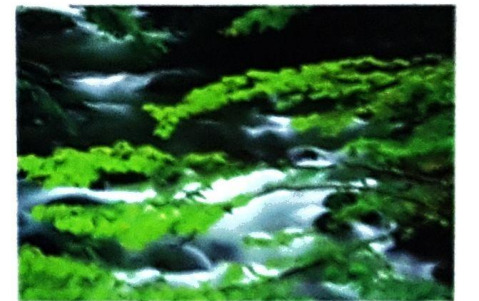
자연 체험할 '도심 속 생명학교' 개설

자연을 체험하는 '도심 속 생명학교'가 개설된다. 부산시 푸른도시개발사업소는 "5월 부터 11월 26일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생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도심 속 생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생명학교'는 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산 남구 대연수목전시원, 사상구 김천아생화단지, 삼락습지생태원, 온천천, 동래구 쇠미산, 낙동강 하구, 창산 등 10곳에서 진행된다.

이 학교는 해당 기간에 월 5회씩 총 35회를 진행하며, 회당 참가정원은 40여명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생명그들'(대표자 구영기) 주관으로 계절별 및 장소별 테마를 가지고 특색있게 운영된다. 대연수목전시원에서는 ▷안녕, 불꽃놀이 반가워 꽃들이 곱네요 등물하게 된다. 김천아생화단지의 경우 ▷계절별 야생화 관찰 ▷곤충탐구를, 온천천은 맑아진 온천천으로 되돌아온 생물 및 식물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세부일정은 매월 15일 전후 구공단지인 생명그들 홈페이지 (<http://www.wk.or.kr>)를 통해 공지된다. 신청은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 문의는 생명그들 (☎051-507-1858)로 하면 된다.

김대현 기자





“부산 갈맷길 관광자원화 하자”

피톤치드와 음이온 많이 배출되는 편백나무, 소나무, 침엽수가 심폐기능 강화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부산지역 해안길과 숲길, 해안과 숲이 혼재하고 있는 길, 도심의 숲에 위치한 길 등 모두 8개 코스(총 길이 65.2km) 갈맷길의 생리활성물질 연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갈맷길 중 피톤치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기장군 테마임도로 11,084~24,700 $\mu\text{g}/\text{m}$ 를 기록했다. 이는 강남지역(0.54~5.86 $\mu\text{g}/\text{m}$)이나 서울(0.9)~4.6 $\mu\text{g}/\text{m}$)에 조성된 걷기 코스나 도심 숲보다 최고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부산의 갈맷길 중 상대적으로 피톤치드 배출량이 적은 백양산 숲길 침엽수 인공림 지역도 1,977 $\mu\text{g}/\text{m}$ 를 기록, 웬만한 타 도시의 걷기 코스보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톤치드에 포함된 테르펜 등 향기에 산란, 생장촉진 등의 물질이 함유돼 있어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 및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산의 갈맷길 가운데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성지곡 수원지로 150 $\mu\text{e}/\text{cc}$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송하산 능선길의 90 $\mu\text{e}/\text{cc}$ 이하, 기장 일광테마임도가 90 $\mu\text{e}/\text{cc}$ 이하로 조사됐으며, 해안길에서는 음이온 발생량이 60 $\mu\text{e}/\text{cc}$ 이하 수준을 나타냈다. 도호면 음이온 발생량이 α 당 10.9개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상

대적으로 갈맷길에서 음이온 발생량이 더 높았다. 냇물과 폭포 주위의 숲에서 발생되는 음이온은 ‘공기 중 비타민’으로도 불리며, 체내에 흡수되면 피를 맑게 해주고 신경조절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

성지곡수원지는 대기질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곡수원지 숲속에서 일반 대기질 수준은 오존 40ppb, 일산화탄소(CO) 0.18ppm, 미세먼지 농도 30 $\mu\text{g}/\text{m}^3$ 이하로 조사됐는데 이는 도시 대기질 농도의 50% 수준으로 성지곡수원지가 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전한 생태공간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부산의 갈맷길이 다른 지역 걷기 코스보다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한 것은 갈맷길 주변에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많이 배출하는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침엽수가 식재돼 있고 해안가에 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유은철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산림욕장을 찾고 있으나 갈맷길을 걷기만 해도 산림욕과 걷기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서 “갈맷길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나무이끼엔 심폐기능 돕는 피톤치드
개울가엔 불면증 없애주는 음이온
‘숲길걷기는 아침·저녁보다 낮시간이 좋아’



숲은 다양한 건강효과를 품고 있다. 초봄에 짙은 식물과 나무가 생장하면서 건강에 좋은 물질을 본격적으로 뿌려내기 때문이다.

숲길 걷기는 해 떠 있는 낮시간이 좋아

숲속 나무와 식물이 방출하는 피톤치드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부터 증가한다. 피톤치드는 나무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출하는 다양한 휘발성물질을 통칭한다.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유종민 교수는 “피톤치드는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 주며,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 준다”고 말했다. 심폐기능과 팔 기능도 강화시킨다.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산업연구과 유리화 박사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공기 유통이 빨라져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아지는 데, 하루 중 정오 무렵에 방출량이 최대치에 이른다”며 “따라서 숲길걷기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보다 해가 떠 있는 낮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습도가 높아 공기 유통이 적은 개울이나 폭포 주위에 피톤치드가 많다.

숲 걷다가 개울가에서 쉬면 음이온이 듬뿍

숲에는 음이온도 풍부하다. 숲속 공기 중 음이온(100~200개/cm)은 도시(3~15개/cm)보다 1백 이상 많다. 음이온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므로 몸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불면증과 두통을 완화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다. 유리화 박사는 “음이온은 물 분자가 공기와 닿을 때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숲을 걷다가 물살이 빠른 개울가에 앉아 쉬면 음이온의 건강효과를 듬뿍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숲은 도시보다 산소량도 2%가량 많다. 숲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온몸이 쾌적해짐을 느낀다고 숲속에서 걷기를 즐기고 있는 것은 산소가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짐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을 하면서 길을 때문에 쌓이는 것산도 풍부한 산소량 때문에 빠르게 분해돼 배출한다”며 “집근처 숲길을 걷으면 도시보다 비슷한 양의 보행을 한 때보다 몸이 덜 피로해 진다”고 말했다.

산림욕하면 암세포 잡는 면역력 높아져

일본 니혼의과대학 연구진이 도시 직장인에게 산림욕을 하게 한 뒤 생리학적 지표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할 때 해세포(NK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산림욕 전 18%에서 산림욕 후 22%로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스트레스클리닉이 우울증 환자 6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숲과 평지에서 각각 1회씩 산책과 걷기 운동을 시킨 결과, 숲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0.113 $\mu\text{g}/\text{dl}$ 에서 0.02 $\mu\text{g}/\text{dl}$ 로 5% 떨어졌다. 평지에서 산책한 환자는 0.15 $\mu\text{g}/\text{dl}$ 에서 0.132 $\mu\text{g}/\text{dl}$ 로 증가했다. 이밖에, 녹색으로 우거진 숲의 시각적 건강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숲속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나타내는 뇌의 알파파가 증가하며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부산역광장분수대

부산역 광장, 문화 소통공간으로 변신 예술단체 지원 동시에 기업 이미지 제고, 조직 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광장이 문화예술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의 문화소통공간으로 변신했다.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 '오감즐거움 문화마당'을 펼친다. 문화마당에서는 색소폰 공연과 대중가요 연주, 무용, 클래식 공연, 마술, 통기타 공연, 부채춤과 사물놀이, 고전무용, 오카리나, 국악, 비보이 댄스공연 등 다양한 공연예술이 선보인다. 예술인들은 한정된 무대에서 벗어나 부산역 광장 전체를 무대삼아 거리 퍼포먼스를 펼친다. 예술인 오픈마켓도 열린다.

문화공연 예술인과 관객도 가까워졌다. 공연 운영계획과 관람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오감즐거움 문화마당 블로그를 운영해 예술인과 관람객 간 소통을 강화한다. 공연 후에는 추첨으로 부산역과 가까운 가나나다운투게이트 있는 중국음식점 할인권도 제공한다. 이 기간 문화마당 공연이 끝나는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부산역

광장 '멀티 분수대'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 더위를 식혀준다. 멀티 분수대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부산의 지리적, 문화적 위치를 고리형태로 형상화한 원형조형물(높이 12.3m, 너비 14.4m) 1개와 초승달 모양 조형물(높이 6.2m)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분수도출만 462개이며 분수 최대 높이는 20m이나, 내부에는 색깔이 변하는 LED 조명을 써 다양한 색깔을 뿜낸다. 음의 높낮이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음악분수 연출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 도입해 파도분수, 음악분수, 거울연못, 광장 등으로 다양하게 가동된다. 바닥에 설치된 다양한 조명등은 여름 밤을 더욱 화려하게 꾸민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역 문화마당이 칠도 이용객은 물론 주민들에게서 큰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한층 강화된 콘텐츠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여 멀티 분수대와 함께 부산역 광장을 부산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수요일엔 40계단 테마거리서 추억 즐겨요”

점심시간에는 빵튀기,
솜사탕도 나누어 준다.

매주 수요일이면 40계단 테마거리와 광복로 차없는 거리에서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흘러간 음악 속에 옛 시절의 아련과 향수에 젖어들 수 있는 '추억의 거리 공연'이 부산의 원도심에서 열린다.

부산 동구청은 40계단 테마거리와 광복로 차없는 거리에서 오는 10월까지(7, 8월은 제외) 정기적으로 거리공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규모 거리공연은 오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중구 중앙동 40계단 테마거리에서 열린다. 5인조 원로 연구인들로 구성된 '40계단 경음악단' 이 색소폰, 기타, 드럼 등 악기를 연주하며 40계단을 배경으로 한 '경상도아가씨' 등 흘러간 가요와 경쾌하고 친숙한 음악을 들려준다. 여기에 빵 튀기, 솜사탕, 족자 등 먹거리를 재현하고 맛 볼 수 있는 '추억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된다. 먹거리가 많지 않아 항상 배고팠던 시절, '빵' 소리와 함께 쫄면 안기와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빵튀기, 국자를 사거릴 때 대위 먹고 야단을 맞게 했던 '실' 탕과 자 40계단 테마거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광복로 차없는 거리에서는 매일 2, 4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각각 진행된다.

공연 후 참여한 관객에게 빵튀기와 솜사탕을 무료로 나눠주며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한 출연진과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두번 직장인들과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공연을 즐기며 잠시나마 피로한 몸과 마음을 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작가의 '가'





해운대 차용한 달맞이길

해운대 라라이길에서 청사포 길을 걷다

초생달이 떠도, 보름달이 떠도, 그믐달이 떠도
달맞이 고개에서 뜨는 달은 이름답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이 있다면 해운대해안을 따라 청사포까지 이어지는 달맞이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을 누군가가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달빛에 젖어 걷는 길이라 해서 문탠로드(Moontan Road)라고도 부른다.

초생달이 떠도 보름달이 떠도 그리고 그믐달이 떠도 달맞이 길에서 뜨는 달은 이름답다는 길, 동·남쪽을 향한 해안 풍경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명품길을 걷다보면 갤러리 몽마르트 등 19곳의 갤러리촌이 산재해 있고 바다풍경~언덕위의 집~디소미동산을 지나면 영화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준 추리작가 김성중 추리문화관이 있다. 이 문화관은 국내외 추리소설 6천여권을 비롯해 4만여권의 책 그리고 세계 유명 문화사건 100여점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어 전국에서 문화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지성인, 이 지역의 문화계 인사, 인문학, 카페, 레스토랑 등이 달맞이 철하축제 등을 만들어 철학과 사랑에

대해 달을 쳐다보며 토론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시회와 재즈공연, 문화공연 등이 곁들여 진다.

대한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달맞이 언덕의 해월정(海月亭), 이곳 광장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까지 예술시장이 들어선다. 문탠로드 예술시장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창작 한 작품들을 열린 공간에서 선보이며 사고파는 흥정이 흥미롭다. 매년 3월~11월까지 장이 열리는 문화의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해월정 옆에 있는 달맞이 동산비 뒤편에는 춘원 이광수의 '해운대에서' 시비가 있다.

청사에 명월이요 / 정산엔 정풍이다. / 정풍명월이 고루에 가득하니 / 풍진에 미웠던 풍금이 활짝 열리더라. / 바다도 좋다 하고 정산도 좋다 하거늘 / 바다와 정산이 한 곳에 외딴 말인가 / 하늘머 정풍명월이 있으니 / 선정인가 하노라. / 누우면 산 일요 없으면 해월이라. / 가만히 눈감으면 풍경에도 명월있다. / 오륙도 스쳐가는 배도 명월 친고 가더라.



해운대
달맞이
문탠로드

달맞이 길은 울창한 나무가지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다. 음식점과 카페, 어느곳에서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공간이 있는 달맞이 고개에서는 매년 8월이면 '달맞이 언덕축제'가 열린다. 한식과 양식, 정통요리와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맛집들이 관광객들을 맞는다. 이처럼 달맞이 언덕에는 맛과 낭만이 깃든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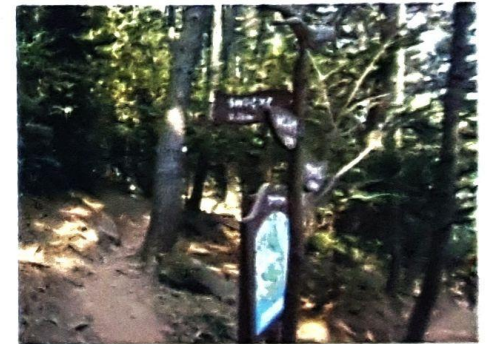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 아름다움 어촌 청사포

해월정에서 청사포로 내려가는 오솔길에는 솔내음과 한창 피기 시작하는 아카시아향기가 코끝에 와 닿는다. 철길을 지나면 해안가 조그만한 어촌 마을이 청사포(靑沙浦)다. 삼포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청사포다. 옛날에는 푸른뱅이 나왔다는 전설에 따라 청사포(靑輪浦)라 불렀으나 지금은 새(鰐)자 대신 모래 사(沙)를 쓴다. 청사포는 외우산을 뒤로한 바다가 앞마당이다. 이 마을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다.

청사포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마을에는 15m 높이의 수렁이 300년이 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옆에는 바위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고 나면 아내는 매일 그 곳에서 남편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그런데 어느날 바다에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풍랑을 만나 죽고 말았다. 남편이 죽은줄도 모르는 아내는 날마다 바위에 올라 남편을 애타게 그리워 하다 죽고 말았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부인이 앉아 기다리던 바위를 망부석(望夫石)이라 부르고 먼 바다를 바라보던 소나무를 망부송(望夫松)이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사랑을 지어 외롭게 죽어간 부부의 혼을 위로하며,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김봉오 관광문화
010-5389-9999



해운대구, '문탠로드' 상표등록

부산관광진흥의 일환으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상표등록으로 명칭과 표지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2011년 11월 15일 부산관광진흥을 중심으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문탠로드(문탠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2011년 11월 15일 부산관광진흥을 중심으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문탠로드(문탠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2011년 11월 15일 부산관광진흥을 중심으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문탠로드(문탠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전 세계를
정복하는
맛



2010 수산물 브랜드 대전 금상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깊은 맛의 가르침
덕화푸드가 이어갑니다.

짜지 않은 깊고 깔끔한 맛, 34년간 오직 명란만을 만들어 지켜온 고유의 맛으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 덕화푸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덕화푸드
www.dhfood.kr
Tel. (051) 265-8163

국내에서 설립한 아태관광학회의 학술논문지 APJTR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SSCI에 등재되는 쾌거 달성

(사)아태관광학회 (APTA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학술논문지 APJTR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이 관광분야 국내 최초로 사회과학분야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등재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009년 Volume 4부터라고 한다. APJTR의 SSCI등재는 관광분야에서 국내 최초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20 번째로서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APTA(회장 동아대 임상택 교수)는 1995년 부산 동아대학교 손해식 명예교수가 창립한 국제관광학회로서 현재 25개국 450여명의회원을 확보한 아태지역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적 학술지 평가기관인 Cabell's Directory에서도 APJTR을 관광분야 세계 6위로 랭크한 바 있다.

이번 쾌거는 국내학자들이 설립한 국제학회가 세계적 학회와

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세계에 우뚝 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광학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PTA(www.APTA.asia)는 매년 7월초에 아태지역 회원국을 방문하여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제17차 연차학술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예정이며 현재까지 120편 이상의 발표논문이 접수되어 있다.

연락처

APTA 사무국장 이 상 미 박사
E-mail, apta@hanmail.net / 051200-8429, 010-9390-7020
APTA 회원관리이사 David Woods교수
E-mail, davidw@dau.ac.kr / 051200-7429, 010-7277-7429

부산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나선다

부산시는 대한의사협회, 그린닥터스재단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을 찾아 의료봉사 및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사절단은 정근 그린닥터스 본부 이사장을 비롯한 진료봉사진 24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지 시립, 주립병원에서 무료진료를 하는 한편 여러 도시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한인회 초청 부산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 부산 국제의료관광컨벤션(9월 28~30일 롯데호텔)홍보, 비지니스 상담회 등 의료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해외환자 5천 921명 중 러시아인이 1천 709명(29%)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검진분야는 건강검진, 피부성형, 척추관절, 심장·간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지역은 의료기관이 적고 의료수준도 낮아 다양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해 직장로가 개설된 부산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설명회에 의료전문가 및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산시 의료관광정책과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함께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현지 설명회에 이어 다음 달 극동 러시아 지역 의료관계 고위층을 초청해 부산 의료관광에 대해 홍보하는 부산지역 해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중국의료관광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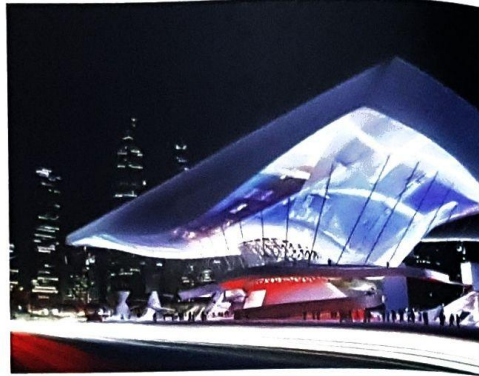


부산영상센터 새 이름 '영화의 전당' 으로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 부산영상센터가 '영화의 전당'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부산시는 그간 부산영상센터 명칭이 세계적인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의 품격이나 BIFF전용관으로서의 위상, 아시아 영화도시 부산 이미지에 모자란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모를 통해 '영화의전당'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공모전에는 599점이 접수했다.

순 우리말 이름 '두레라움'은 애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영문명칭은 종전대로 부산시네마센터(Busan Cinema Center)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영화의 전당은 앞으로 공식 명칭으로 모든 문서에서 사용되며 현재 설립 진행중인 재단법인 이름도 영화의전당으로 바뀐다. C도 제작하고 특허청 등록도 협의하고 있다.

[문의처] 영상문화산업과(T.888-3496)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 (The 24th Korea World Travel Fair)

6월 2일부터(목)부터 5일(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50여개국 약 430개 업체·기관·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국제관광전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와 관람객 양쪽 모두에게 한 층 업그레이드된 박람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비즈니스 측면 강화는 물론, 세계인속공원을 비롯하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되는 "아랍문화·관광 특별전"은 최근 민주화 열풍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랍지역 14개 국가들의 참여로 관람객에게 흔히 접하지 못한 아랍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In/Out Bound 비즈니스 실적 강화에 역점을 두어 첫째로는 해외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설명회, 트래블마트, 팸투어 등을 준비 중이며,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Inbound Travel Mart를 확대하여 한국방문의해조직원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들의 만남의 장과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처] (주)코트파 사무국 02)757-6161
[홈페이지] kofta.co.kr



바다 경관 브릿지, 랜드마크 방파제, 청사포 마켓 조성

부산의 도심 속 대표적 어촌마을인 청사포가 각종 건축 디자인을 도입한 신선했던 옷을 입는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관이 아름답고 주민이 살기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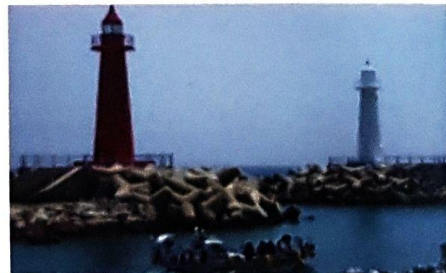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 추진 중인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사업을 지난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최우수 작품으로 뽑은데 이어 올해 본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청사포는 2013년까지 모두 182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펼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까지 모두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원활한 국비지원에 나설 계획.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는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가깝지만 개발에 밀려 낙후된 도시 어촌마을.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 지난해 부산시 최초로 경관협정을 체결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있다.

행복한 도시어촌 만들기 사업에 따라 청사포 마을 중심에는 삶의 터전으로 활용할 '청사포 마켓'이 들어선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과 어민들이 생산하

는 미역 등 각종 수산물을 팔아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현대식 시장이 서는 것이다.

기존 방파제는 업그레이드 해 소리와 빛으로 청사포의 정겨움을 나누는 '랜드마크 방파제'로 탈바꿈한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바다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썬지공원이 조성되고 기존 등대와 등대 사이 100m 구간 바다위를 가로질러 등대경관 브릿지가 조성돼 관광명물로 거듭난다. 공영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보강된다.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11년 7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무용제(6월 3~7일)의 새로운 변화가 무용계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BIFF(부산국제영화제)에 이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BID에서는 3월부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시민 춤 릴레이 행사를 5가지 테마 "Dacne Day"라는 주제로 기존 행사보다 더욱 활성화시켜 아마추어 춤꾼부터 장애인팀, 청소년팀, 실버팀, 대학동아리팀, 합합팀까지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각층의 다양한 세대들에게 시민 춤 릴레이를 통해 BID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여기에 입상한 팀은 6월 BID 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국제무용제는 무용계만이 아니라 춤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BID의 기분 좋은 변화가 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문의처] 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 051)890-2507
[홈페이지] bidf.or.kr



김해공항 국제선 정기노선 취항 늘어 정기 7편·부정기 4편... 주 38회 신규 취항

김해공항 국제선 정기노선이 크게 늘어난다. 부산시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로 가는 국제선 정기노선 7개가 추가돼 매주 38회 신규운항에 들어간다.

추가 운항편은 지난달 27일 중국 동방항공의 부산~엔타이, 지난 2일 제주항공의 부산~홍콩 정기취항과 함께 부산~호치민(아시아나), 부산~하노이(아시아나), 부산~나리타(에어부산), 부산~홍콩(에어부산·제주항공), 부산~방콕(제주항공), 부산~베이징(해남항공) 등, 6월 말까지 차례로 운항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의 국제여객 정기노선은 26개 노선에 주 287

회로 늘게됐다. 인천공항을 돌아가는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이다. 정기노선 뿐만 아니라 부산~세인트 피터스버그, 부산~정저우, 부산~시안을 오가는 4개 노선 주 44회의 부정기편도 운항을 시작한다.

부정기편은 승객추이를 봐가며 정기편으로 안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김해공항은 국제선 증가에 따라 국제선 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8개를 증설 중이다. 오는 9월 원공되면 당분간 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에어부산, 부산~나리타 내달 23일 신규 취항

에어부산이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에 이어 부산에서 도쿄 나리타를 잇는 하늘길을 연다.

에어부산은 다음달 23일부터 부산~도쿄 나리타 노선을 취항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선착순 990명에게 부산~도쿄 나리타 왕복항공권을 9만9천원에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5일까지 에어부산 홈페이지(airbusan.com)를 통해 부산~도쿄 나리타노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고객에 대해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과 도쿄타워 입장권, 온천이용권, 일본 선불카드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에어부산은 부산~도쿄 나리타 노선에 195석 규모의 A321-200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1회 왕복운항 할 예정이다. 운항시간은 부산발 오전 10시 55분, 나리타발 오후 1시 55분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부산~도쿄 노선은 부산 기점 국제

선 가운데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연중 평균 탑승률이 80%를 웃돌 만큼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려 왔다"며 "이번 신규 취항을 계기로 부산과 동남권 주민들은 한층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단된 대마도행 여객선, 6월부터 주말·휴일 재운항

중단된 쓰시마행 여객선이 오는 6월부터 매주 주말과 휴일에 한해 다시 운항한다.

JR규슈고속선 부산지점은 오는 6월 18일부터 매주 토·일요일에 부산~대마도간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최근에 밝혔다. JR규슈고속선의 비틀호(200인승)는 매주 주말과 휴일 부산~대마도~후쿠오카를 운항하게 된다. 선사는 일본 후쿠오카행 승객을 고려해 100~150석 정도 대마도행으로 할당한다

는 계획이다.

부산 중구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오전 10시 대마도로 출발하고 대마도에서는 오후 2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오후 3시 부산에서 대마도로 향하는 비틀 비정기선에 비하면 승객들이 좀 더 여유있는 여행 일정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요금은 왕복 14만원(유류할증료 포함) 선이 될 것으로 선사 측은 밝혔다.

부산 차이나타운 국제관광명소로 변신

부산 동구 초량동 '차이나타운'이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명소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2012년 2월까지 23억원을 투입, 차이나타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차이나타운에 아케이드형 경관 조명시설을 하고 타운 내 간판을 중국풍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차이나타운 안에 문화존을 조성하고 중국예술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차이나타운특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측은 "차이나타운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모두 갖춘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나타운은 청간거리·백제병원 같은 역사·문화적 자원이 산재해 있고 부산역·국제여객터미널 등과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낙후된 지역 여건 및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동안 특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해외에 소개

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등 해외에 소개된다. 도시네트워크(ICN) 회의에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이 참석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정책 사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창조도시 ▷산복도로 지역 현황과 특성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개요·추진방향·주요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오는 7월 8~22일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일대에서 국내외 참가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청소년 워크캠프'를 홍보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뉴델리'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유네스코 파리본부, 영국 국제개발부(DFID),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등 유명 국제기구 관계자가 대거 참가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역사적 도시에서의 도시이동성과 역사유물 기반의 도시 개발에 대한 이니셔티브·트렌드'와 '도시의 혁신적인 문화유산 보호사례 공유 및 협력 강화'이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500억 원을 들여 부산지역 6개 구, 54개 동, 54㎢

의 산복도로 지역을 공간·문화·생활재생을 통해 자력수복형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철도 하루 승객 개통 26년만에 800,000명 기록

부산도시철도가 개통 26년만에 하루 평균 승객 80만명을 돌파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일을 기점으로 올해 하루 평균 승객이 8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호선이 개통한 지 3년만에 하루 평균 승객 10만명 시대를 연 이후 1988년 30만명 시대와 1992년 50만명 시대를 거쳐 2008년 하루 평균 승객 7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들어 주말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만명 이상의 승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기념해 80명의 단골 고객에게 총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연다. 한 달에 20차례 이상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에 접속해 교통카드 번호, 도시철도와의 특별한 인연 등을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10만원, 2등 5명에게 각각 5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등을 제공한다.

한편, 지난 3월 30일 개통한 4호선은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2만6천여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은 영산대역으로 하루 평균 3천387

명이 승차했다. 이어 동부산대학역에는 하루 평균 3천9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4호선이 당초 목표대로 반송지역과 도심인 동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좌수영교 주변 시민휴식공간, 자연학습공간 탈바꿈 연말까지 10억원 투입, 지역 새로운 명물로..

부산 해운대구 좌수영교 주변에 친환경생태공간이 생긴다. 부산시는 "수영강변인 해운대구 좌수영교 일원 8000㎡에 친환경생태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좌수영교 주변의 이 땅은 시 소유의 공터로 대형 화물차 주차·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극심한 버려진 공간이었다.

부산시는 이곳에 올해 말까지 생태계 보전협력금 10억 원을 들여 생태숲과 양서류 서식지, 생태습지, 관찰원, 초화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숲과 꽃밭, 습지 등이 조성되면 좌수영교 주변은 시민 휴식공간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산시측은 "좌수영교 친환경생태공간은 수영강변 자전거도로·산책로 등과 연결돼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앞으로 수영강변의 청호반새·가마우지 등 생태 동·식물과 경관을 즐기며 운동과 산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등대와 함께하는 부산항 축제

제1회 부산항축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일대에서 열렸다. 주제는 '바다의 빛! 등대와 함께하는 부산항,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항만축제로 자리잡은 이 행사는 개항 135주년을 기점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BP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축제는 제1회 바다의 날(31일)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교육과 체험 위주의 항만축제로 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회계를 준비했다. 특별한 올해 처음으로 등대를 테마로 역대 가장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등대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에는 등대만들기 체험, 등대체험교실, 부산항등대 사진관, 등대도자기 특별전 등이 있다. 행사장에 전시될 대형 등대 조형물은 2009년 건립된 부산 최초의 등대인 영도등대를 형상화한 것이어서 시민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항만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참여해 단체의 성격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총장배 전국요트대회와 세계인의 날 축하행사, 해양관광홍보전, 선박항해 시뮬레이터세움, 부산바다전과 한국해운사 & 선박모형전, 서연 선상아카데미 등은 올해 처음 마련되는 행사들이다.

27일 오후 7시 30분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특설무대에서 막이 오를 개막행사 부산항 열린 음악회에는 가수 조관우, 주현미, 조항조, 서주경, 김보결, 수키스, 다미, 성하가 김화경 등 초청가수 축하공연과 불꽃쇼, 행경특수악천 시연, LED댄스 퍼포먼스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이번 가운데 BPA항만안내선 새누리호와 범선 누리호호를 이용해 북항을 둘러보는 '부산항 선박투어'와 부산선박 버스투어는 이례로왔다. 행사 기간 중 부산공원 부산타워에서는 대형 등명거울 이용해 일출 후 2시간 동안 등대 불빛을 표현하는 이벤트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문화는 삶의 필수품이다



인간은 배고픈 상태에서는 밥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 보다 상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만족하게 되고 또 일 욕구가 충족되면 다른 상위의 욕구가 나타날 것이다. 욕구는 끝없이 반복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메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를 빌리자면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 중 최상위의 욕구는 인간이 탐구와 창의적 활동 등을 통해 자기 발전과 성취감을 느끼고 창조적인 생활을 하며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여기에는 권평이나 각종 문화·레저활동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여유가 생길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문화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더욱 부각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1900-70년대의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던 산업사회를 기치고, 고도성장과 경제적·문화적 풍요를 가졌던 1980-90년대를 지나 지금은 삶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정신적인 여가활동과 문화적 향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문화향수라는 말은, 가진 자의 전유물도 아니었고, 문화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문화로 삶의 필수품으로 인식하기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는 짐작할 수 없다. 또 현재 어느 사회, 어느 나라가 문화로 삶의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더더욱 모른다. 더구나 수없이 많고 다양한 문화 현상 중에 과연 어디까지를 필수로 규정하고 어디서부터 사치로 규정해야 하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몇가지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질 높은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양질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선진국일수록 문화와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삶의 중요요소로 간주할 것이라는 사실 정도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문화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라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향유도 활발해질 것이라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화후진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인재는 우리나라도 문화가 삶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날이 올 것이다.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어 문화를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 남의 것으로 인식하게 된 한 재로서는 문화를 통해 꿈꾸고 희망을 실현하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마음 바랄 뿐이다.

김봉오 편집위원
bjbusan@hanmail.net

www.eunsan.co.kr



제15회 바다의 날 정부 포상
‘산업포장수상’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은산의 힘!”**
은산의 진정한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한 ‘믿음’입니다.



대표이사 양재성

은산해운항공주주들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은산이 더 큰 바다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종합물류 프론티어, 은산해운항공주



은산해운항공주주들
銀山海運航空株式會社
銀山컨테이너터미널株式會社
銀山輸出包裝株式會社

●시	울 : 서울시 중구 소공동 27번지 한남빌딩 5층	TEL 02-772-0000	FAX 02-773-0000
●부	산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7번지 연일해운빌딩 5층	TEL 051-441-0000	FAX 051-441-0000
●양산CY/CFS	경남 양산시 아곡동 100-1번지	TEL 055-331-0000	FAX 055-331-0000
●신항만CY/CFS	부산시 영사동 송정동 100-1번지	TEL 051-501-0000	FAX 051-501-0000
●포	경남 양산시 아곡동 27-1번지	TEL 055-331-0000	FAX 055-33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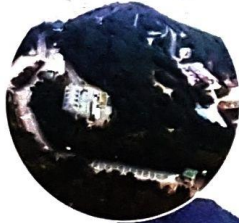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해운대·태종대 야경코스



광안대교

부산 제일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바다 위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브릿지 광안대교는 국내 최초의 해상 복층 현수교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 불빛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노라마는 1년 365일 날마다 새로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야영 체험과 도자기 체험,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 최대의 인공암벽장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금련산 정상에 위치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동시에, 부산 유일의 천문대를 통해 밤하늘을 관측할 수도 있어 부산시민의 휴식 장소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달맞이길

봄이면 흐드러지게 만개한 핑크빛 벚꽃길이 펼쳐지고, 밤이면 달빛따라 걷는 해안 산책길 문탠로드가 이어지는 달맞이길! 정월 대보름, 이곳에 위치한 해탈정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평생 사랑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산박물관

멀고 먼 선사시대부터 삼한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자.



UN기념공원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 한국전쟁 UN참전군 전사자의 넋이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 내에는 UN참전비와 각국 전사자들의 묘, 아름다운 조각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울속도 자연생태 코스



“서부산의 절경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울속도 자연생태코스”



암남공원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이곳에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해안산책로와 수심이 깊지 않아 복식하기 좋은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의 6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다대포해수욕장! 이 곳 갯벌에는 여러 가지의 상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대포 갯사, 돌문고, 운공단 등 문화유적지가 많으며, 세계 최대의 바닷분수인 기네스북에 오른 낙조분수는 관광객들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아미산전망대

백조 무리가 새하얀 목화송이처럼 정점이 깎여 있어 있는 모슬미나 도요새 피가 하얀 새를 볼 수 있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탐조 장소, 아미산 전망대! 그 밖에도 밤하늘 북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과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현상을 한눈에 관찰 할 수 있다.

울속도예코센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울속도 철새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를 전시, 교육,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울속도 예코센터! 그 밖에도 낙동강 하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 051-785-1111, 051-785-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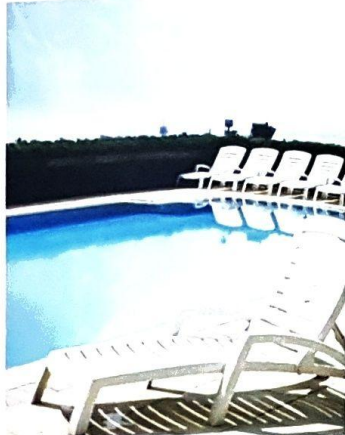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의 이른 여름, 파라다이스와 함께하는 로맨틱 태닝 패키지

다른 누구보다 해운대의 이른 여름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는 2011년 6월 1일 ~ 2011년 7월 14일까지 해운대에서 연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로맨틱 태닝 패키지를 선보인다.

욕외 수영장의 미니쿠퍼(MINI Cooper) 태닝 존에서 미니쿠퍼 모형차와 함께 즐기고 싶다면 여름을 미리 준비하거나, 커피와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영화 감상하며 로맨틱한 시간으로 이른 휴가를 즐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패키지이다. 패키지 A타입은 객실 전망에 따라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며 주중(일~목)에 이용 시 도심방향 190,000원, 해변 측면 방향 210,000원, 해변 정면 방향 240,000원이다. 패키지 상품 이용고객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특전은 뷔페 뷔페에서 아이스크림 2잔(Take-out)과 욕외 온천 및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우나 특별 할인 쿠폰과 식음료 업장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패키지 B타입은 객실과 함께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해운대 바다와 푸른 잔디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에스카미에'의 조식과 주중 고객을 대상으로 MINI에서 협찬하는 Key Ring(200명 한정)이 추가로 제공된다. 주중(일~목)에 이용 시 도심방향 235,000원, 해변 측면 방향 255,000원, 해변 정면 방향 285,000원이다. (패키지 전체 디렉스를 기준, 금요일 및 공휴일, 토요일 가격은 문의)



6월 한달 간, 매주 일요일(저녁8시~10시)에는 로맨틱 영화 감상 혜택이 더해진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연회장에서 컵테일과 함께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림 '아바'의 음악이 어우러진 주크박스 뮤지컬 <맘미미>,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금 고백하게 만드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그 누군가를 만나 운명적 사랑을 하고 싶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시간이 지나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영화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밖에도 Early Bird Promotion을 통해 투숙 2주전에 주중2박(일~목)을 예약하고 지불 완료하신 고객에 한해 패키지 금액 10%를 제공한다. 단,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2011년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 해운대 파라다이스에서 여유롭고 로맨틱한 이른 여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떨까...

☎ 문의 및 예약 (051)749-2111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누들인더비치

프리미엄 뷔페 씨스케이프는 다가오는 6월 6일부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면요리를 맛볼 수 있는 '누들인더비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면요리는 어떤 부재료와도 잘 어울리며, 탄수화물을 원료로 하고 있어 영양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비교적 입맛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더욱 생각나는 음식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중국의 심선, 사천 자장면, 일본의 아끼우동, 베트남의 쌀국수와 쌀국수 볶음 그리고 이탈리아의 크림, 토마토 파스타 등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면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씨스케이프는 프로모션과 더불어 매일 저녁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심심한 해산물과 비비큐를 족식에서 요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운대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씨스케이프에서 세계 각국의 면요리를 즐길 수 있다.

• 기간 : 2011년 6월 6일 ~ 19일 ☎ 문의 및 예약 (051)746-8265



양고기의 부드러운 유혹, 'Lamb & Wine Promotion'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양식당 '벤타나스'에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Lamb & Wine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비교해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적고, 갈슘, 인,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하여 기운을 돋우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기 전, 몸을 보양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다. 또한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민감한 20~30대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벤타나스가 선보일 이번 프로모션은 양고기로 만든 에피타이저, 수프 및 4가지 종류의 메인 요리로 이 중 크림버섯 소스를 곁들인 양갈비 요리, 스프라인 라이스와 버섯을 곁들인 양고기 스테이크, 토마토와 버섯을 곁들인 양고기 파이는 주로 스테이크로만 접할 수 있다.

• 장소 : 벤타나스 (4F) ☎ 문의 및 예약 (051)743-8481



부산롯데호텔



Summer Cool Cool PKG 다양한 즐거움과 혜택이 가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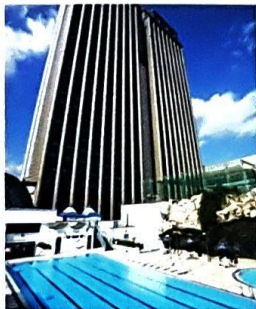
부산롯데호텔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원한 여름을 위한 'Summer Cool Cool' 패키지를 진행한다. 이번 패키지는 다양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고객의 기호에 맞춘 상품을 선보인다.

스탠드 객실에 아디다스 비치백과 비치볼이 제공되는 Cool Cool Beach 패키지는 18만원, 어린이를 위한 그린핑거 샌크림과 키즈매장 할인권, 보조침대가 무료로 제공되는 Cool Cool Kids 패키지는 19만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주중 요금, 주말 3만원 추가) 부산의 곳곳을 살펴보기 위한 갈맷길 투어가 추가되는 Cool Cool 갈맷길 패키지는 주말에만 운영되며, 가격은 22만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올해는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에 무료 셔틀이 운행될 예정이며, 해운대에 호텔 캠프장이 차려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광안리 해안 레포츠 센터와 제휴하여,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나나 보트, 플라잉 피쉬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 업그레이드 및 조식 등 다양한 옵션도 준비되어 있다. 7,8월 피크 시즌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호텔에 미리 문의할 것.

절고 화려한 부산의 중심 서면의 활기도 즐기고,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의 시원함도 동시에 만끽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 부산롯데호텔에서 이번 여름 휴가를 즐겨보자.



☎ 문의 051.810.1100
www.lottehotelbusan.com
blog.naver.com/hilottehotel

호텔농심



허심청 웰빙이벤트

호텔농심에서 운영하는 온천의 명소 '허심청'에서 6월 1일부터 다양한 웰빙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온천, 찜질, 식사, 썬욕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웰빙 온천 패키지를 선보인다. 온천+찜질+스낵코너 식사 + 썬욕돌봄까지 정상가 ₩27,000의 상품을 ₩16,000에 제공한다. (주말 이용 시 2,000원 추가 / 스낵바 식사 : 비빔밥, 추어탕, 새알미역국 중 택일) 둘째, 금정산 등반 후 건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등산객 이벤트를 통해 등산객에게 선물과 혜택을 제공한다. 등산복, 등산화, 등산가방 중 1개 이상 착용한 5인 이상 단체 중 남성에게는 치솔+면도기+이태리타올 셋트를, 여성에게는 치솔+이태리타올+폼글렌징 셋트를 제공하며, 20인 이상 단체에는 증정품 및 특별할인 (₩8,000~₩7,000)을 제공한다.

셋째, 부대시설 ₩6,000 이상 이용 시 특별혜택, 온천권 20매 구매 시 특별 선물, 찜질방 무료 건강 강좌 등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 이벤트를 개최한다.

건강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허심청에서 온 가족이 건강한 휴식을 갖는 것은 어떨까?



☎ 문의 및 예약 (051)550-2200

호메르스 호텔



Early Summer Package

기간 : 6월 1일~7월 21일

- 한결 빨리 다가온 여름, 6월1일 광안리해수욕장 개장
- 개장 기념으로 일찍 준비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리즈너블 요금으로 모십니다. 2011여름의 추억을 호메르스호텔에서 만끽하세요.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전경과 야외 미술관이 설치된 광안리 해변, 다양한 카페와 커피하우스 거리는 이국적인 부산의 모습입니다.
- 비치디럭스 : 155,000원 / 시티비즈니스 : 115,000원 (봉사료 및 세금 별도)
- 조식뷔페 2인 무료제공 -인터넷 전용선 무료
- 휘트니스센터 무료이용, 사우나와 핑퐁방 할인가 5,000원
- 웰컴 드링크 2인 제공(아메리칸 커피 또는 주스)
- 주말 (금,토,공휴) 전일은 <디럭스 : 40,000원 / 비즈니스 : 20,000원> 추가



☎ 문의 및 예약 (051)750-8000 호메르스 객실예약

부산관광호텔



비즈니스패키지 쇼핑, 관광, 비즈니스를 한 번에...

37년 전통의 고품격 서비스로 부산의 랜드마크 자리잡은 부산관광호텔에서는 비즈니스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광복점), 남포동 거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PIFF광장, 용두산공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비즈니스와 쇼핑과 관광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예약 : (051)241-4301~9 FAX. 244-1153
www.pusanhotel.co.kr

	객실정가	조식1인, 사우나50% 포함패키지
Standard	120,000	82,000
Suite	160,000	102,000

씨클라우드호텔



Early Summer 패키지

6월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에 해운대를 즐기시기를 원하시는 고객을 위해서 씨클라우드 호텔에서는 "Early Summer 패키지"를 선보인다. 여름의 문턱에 있는 해운대 바닷가는 즐기기 위해서 찾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번 패키지는 예민해 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 기능성 화장품을 표방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닥터자르트"의 "V7 페이스 미스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스킨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행 중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휴대가 용이하여 여행하는 분들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와 더불어 호텔 4층에 위치한 "theus" 레스토랑에는 이번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해운대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운대 주변 관광 명소인 부산아쿠아리움 15% 할인, 티파니21 크루저 15% 할인, 동백 유람선 10% 할인 혜택을 준다. 가격은 150,000원(슈퍼리어 하프 오션뷰, 부가세 별도)이며, 2011년 06월 01일부터 2011년 07월 15일까지 선 보인다.



☎ 문의 및 예약 (051)933-1000
www.seacloudhotel.com



Romantic Cruise Tiffany21

선상프로포즈로 연인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어느덧 선상 오픈데크에서 광안대교 야경을 즐기기에 좋은 따뜻한 봄의 가운데에 있다. 선상에서 여유롭게 디너를 즐기며 귀로는 감미로운 노래를 감상하고 눈으로는 해운대와 광안리(광안대교)의 야경을 감상하는 로맨틱 크루즈 티파니21에서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말을 용기있게 고백해보자.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티파니21에서의 프러포즈로 사랑도 얻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티파니21에서는 이벤트를 계획중인 고객들을 위해 프러포즈이벤트와 함께 조금 더 저렴하게 와인, 꽃다발, 케익 등을 포함한 패키지도 판매중이다. 꽃다발이나 케익 중 선택하여 패키지로 예약하면 가수의 멋진 노래선물과 함께 선상에서 사진을 찍어 출력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고민중인 분이라면 티파니21의 기념일패키지를 이용해 보는것도 좋을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oveacruise.com)를 참고하세요.



[은상코스]
주간 : 동백섬-해운대-오륙도-이기대-광안대교
야간 : 동백섬-누리마루-해운대-광안대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9 마린시티 168
Tel. 1577-7721 / 051)743-2500

최초는 'No' 였다

강 용 노보텔엠베서더부산 회장

“우리는 이렇게 임했으며 일한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안을 찾는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할 여유가 없어 다소 미흡하여도 행동으로 연계되는 결론을 일단 내어 본다. 차선책이라도 실행에 옮겨본다. 퇴로없는 말뚝을 박아 성공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한다.”



노보텔엠베서더부산

지난 얘기를 꺼내면 과장하여 말하는 습관이 내겐 있다. 특히 군대 얘기, 학창시절 첫사랑 얘기, 낚시하다 큰고기 잡은 얘기, 자식자람은 틀림없이 언젠가 그렇다. 나만 그런가?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지난해 우리회사는 '우리가 생존 할 수 있는가?' 의 문제로 200여명의 전직원이 함께 고민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의 최저 요건영업 현금흐름 연간 50억원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 No면 삶의 터전인 우리의 일터 상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1. 부산 해운대지역의 호텔시장은 이미 성숙되어 호텔 사업의 매력에 없다.
 2.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입장에서의 최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강성노조 존재로 불가능하다.
 3.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절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4. 우리호텔의 강점은 없다.

우리는 No 였다. 그들의 No평가를 뒤집는 또 하나의 가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YES(그래!) GO(가자!) CAN DO(하자!)

우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했다. 우리들은 일터에서 그리고 일과가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로 때를 지어 다니며 수많은 대화를 하여 문제를 수면위로 들어 내었다. 그리고 과거 20년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또 분석하였다. 우리들의 결론은 Yes 였고 새로운 가설은 이렇었다. "향후 3년간 객실 평균 단가를 2009년 대비 매년 10% 이상 up시키며 총매출의 50%를 점하는 인간비 총액을 30% 절감하면 단기적 생존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외부 자본유치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적 기반구축이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가설을 회사의 전체적인 자원배분을 고려하여 행동으로 즉각 실천하였다. 조직간소화, 전업장, 전주방의 일원화된 근무스케줄 운영, 만성적인 무패식당 주중 점심영업 중단, 로비바 주중 영업시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수 투자 이행, 업계 최초로 호텔 영업전문 여성 총지배인 영입, 발주 및 재고 금액 조정, 노사공동 경영시스템 구축, 객실 예약시스템 전면교체, 가격경쟁 회피를 위한 중고가 시장 확실한 선점, 고객만족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기준 마련 등 경영혁신을 위한 제반 조치와 회사 정상화시까지 향후 3년간 전직원 급여 일률적 20% 삭감이라는 뼈를 깎는 자구대책,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지만 뭔가 실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전직원이 혁신적인 조치에 동참하였다. 와중에 수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처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설득하였다.

드디어 그들도 Yes!

우리는 이렇게 임했으며 일한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안을 찾는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할 여유가 없어 다소 미흡하여도 행동으로 연계되는 결론을 일단 내어 본다. 차선책이라도 실행에 옮겨본다. 퇴로없는 말뚝을 박아 성공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한다. 특히 금년은 업황호조로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관광소프트 확충으로 지역 관광 산업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년간의 정상화 플랜으로 본업에 충실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호텔이고 싶다. 우리가 한다. 우리가 했다. 마치 자만인처럼 얘기하게 되겠다

부산 용두산타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등대'로 변신 부산 찾는 관광객에게 큰 인기 끌 것

부산관광컨벤션뷰로는 부산항 뱃길을 밝힐 수 있는 초대형 등명기를 타워 정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119m 높이인 타워 정상 전망대에 대형 등명기가 설치되면, 106m로 현재 세계 최고 높이 등대인 일본 요코하마 마린타워 등대보다 더 높은 등대가 된다.

"용두산타워는 등대를 모태로 설계됐고, 등대로 등록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등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도 가능해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폭풍우 속에서도 뱃길을 열어주고 '희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를 지키는 '의리'라는 등대 고유의 이미지를 부산시민의 특성과 접목해 도시브랜드 마케팅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비태 뷰로 사무처장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등대가 부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등대가 부산의 이미지를 자리 잡으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권도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셔틀버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4월 483명...전달 2배 상승, 중화권·동남아·유럽 순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부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운행하는 서울-부산 외국인 관광객 무료셔틀버스가 인기다. 부산시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주관으로 4월부터 본격 운행하고 있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매일 1회 28일승 리무진버스 1대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으며, 셔틀버스 내부에는 탑승객 비율에 따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가이드가 동승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4월 셔틀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거주 89명(18%), 국외 거주 394명(82%) 등 총 483명이다. 이는 3월 이용객 204명 대비 137%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탑승객(483명)의 82%인 394명이 부산에서 1박 이상 체재할 계획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별 이용현황은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173(36%),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137명(28%), 유럽 68명(14%), 일본 45명(9%)의 순이다.

한편 이 셔틀버스는 하행(서울→부산)의 코스인 경우 서울광화문 동화면세점(08:00)→서면(롯데호텔 14:00)→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 15:00)로, 상행(부산→서울) 코스는 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 16:00)→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22:00)으로 연결된다.

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영문홈페이지 <http://english.visitkoreayear.com> 또는 전화 1577-25047로 신청하면 된다.

UnionPay 中国银联
China Unionpay



사장님, 알고계세요?

16억 중국인들은 은련(CUP)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

중국 관광객 은련카드
소비 캠페인 매출 255% ↑

2010.11.08 김지은 기자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중국은련카드사, 비씨카드사와 공동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련카드를 이용해 35만원이상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등 소핑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 매출액인 503억에 비해 25%증가한 1285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국경절 특수기간(10월 1~7일)이던 10월은 명동 특구에 아치, 거리배너, 현수막, 전단지 배포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캠페인을 적극 알리 국내 은련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10월 5만 3000건 189억에 비해 230% 증가한 12만건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은 318%, 신세계 270%, 현대백화점 81%등 유통업계 역시 중국 관광객 쇼핑 매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은련카드 가맹점, 이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요 가맹점들이 은련카드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주요 은련가맹점 현황
- 면세점 롯데면세점(서면점, 김해공항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 특급호텔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 쇼핑센터 용두산공원쇼핑센터, 광복로 일대, 남포동 지하상가
-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 국내 모든 비씨카드 가맹점은 '은련카드 가맹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단말기 정비 요청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완료 사실
전화 통보

'은련카드 전국 가맹점 문의' ☎ 1588-7418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진행

- ① 은련카드 가맹점 확인서 제출
- ② 비씨카드의 은련카드 가맹점 신청서 제출
- ③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은련카드 표시
- ④ 은련카드 스티커 부착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로, 가맹점의 영업에
모든 수월함을 가져다 줍니다.

가맹점 가입 완료

www.novotelbusan.com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 연안도시 니스,
그 곳을 꼭 빼닮은 곳.

프랑스 체인호텔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입니다.

문의 및 예약 (051) 743-1234



Designed for natural living

Addres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5-16번지 Tel: (051)743 1234 Fax: (051)743 1250 E-mail: welc@me@novotelbusan.com